

무주서 반딧불이 큰 잔치 연다

무주군, 오는 5일 무주등나무운동장서 청소년 댄스 딜라이트 등 풍성한 행사 마련

무주군은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일 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 어린이날 반딧불이 큰잔치 '달려라 미래로! 날아라 희망으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주청소년수련관(관장 김정현)이 주관하고 무주군과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안성청소년문화의 집,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라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이 후원하는 것으로, 10시 50분 청소년 댄스 딜라이트 공연과 반딧불태권도시범단의 태권포포먼스를 시작으로 기념행사, 만들기 체험(모기퇴치방향제, 아크릴팔프, 가방걸이, 다육화분, 캐이션 등), 맛(김밥, 팝콘 등), 멋(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 건강·안전체험(소방

경험체험 등), 버블쇼(비눗방울 체험, 버블풍선쇼 등)가 펼쳐질 예정이다.

스탬프 행사도 진행한다. 물총놀이와 멋·맛 체험을 제외한 만들기, 건강·안전부스 체험 후 도장 5개를 받으면 선물도 증정한다. 행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보다 더 풍성한 놀이,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부스들을 마련한다"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당일 주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적상·안성행, 무풍·설천행 순환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제1노선 안성·적상행은 오전 9시, 11시, 안성능화하나로 마트, 9시 30분, 11시 30분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을 거쳐 행사장에 도착한다.

제2노선 무풍·설천행은 오전 9시, 11시 무풍면 버스정류장, 9시 30분, 11시 30분 설천면 GS25 편의점을 들러 무주예체문화관(행사장) 주차장에 하차한다. 행사 후 귀가차량은 1.2노선 모두 오후 2시 20분 무주예체문화관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무주=전문기자



무주군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일 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 '달려라 미래로! 날아라 희망으로!'를 개최한다.

진안군, 한마음 치매극복걷기대회 개최

오는 4일 중앙초등학교서

진안군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4일 오전 10시부터 '한마음 치매극복걷기대회'를 연다.

이번 한마음 치매극복걷기대회는 '치매 애(愛) 희망을 나누다'는 슬로건 아래 치매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중앙초등학교 후문에서 출발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다시 중앙초등학교 후문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길로 2.5km를 걸을 예정이다.

군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담아 희망을 전하는 행사로 그동안 자진 심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치매는 노인인구 증가와 맞물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대 의학기술로는 완치 방법이 없는 데다, 그 어떤 질병보다 돌봄이 중요해 가족들의 고통이 크다.

특히 한사람, 한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며 지역사회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번 행사는 치매예방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치매를 바라보고 관리하는 패러다임을 전환 하고 숨어있는 치매환자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안심 전문가 도우미 사업, 치매가족 해어임 교실 운영,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 맞춤형사례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역 매 아리



진안군, 학교숲 조성 주민들 큰 호응

진안군은 학교숲(명상숲) 조성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친 자연학습 공간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진안군에 따르면 산림청 도시숲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 토지나 주변 공간을 활용해 친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안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의 신청으로 매년 1개소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대상으로 마령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내 대망동산을 전반적으로 재조성하여 숲의 쾌적함을 더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안공고를 비롯해 총 7개소 학교숲을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학교숲 조성을 통해 우리 꿈나무들의 올바른 학습과 성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진안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전동침대 50대를 구입해 관내 노인요양시설인 평화요양원에 보급했다.

무주군, 요양원에 전동침대 50대 지원

무주군은 전동침대 50대를 구입해 관내 노인요양시설인 평화요양원에 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전동침대는 좌식으로 된 생활실에 입소해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고 욕창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급한 것으로, 평화요양원 관계자는 "와상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욕창 등의 우려도 있고 좌식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전동침대로 많은 부분 해소가 됐다"라며 "어르신들 입장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해 있는 평화요양원은 2006년 12월 개원해 90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으며,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60여 명의 직원

들이 입소 어르신들을 위한 일상생활 서비스와 의료·간호서비스, 재활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인지상태 별로 운동요법과 미술요법, 작업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주군청 박기훈 노인복지 담당은 "평화요양원은 치매나 거동불편 등의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 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도시가스시설 공사를 추진한 것을 비롯해 중증 환자용 휠체어 구입, 자동개폐장치, 비가림 시설, 계단 등 설치를 지원해왔다.

/무주=전문기자

진안 마이골작은영화관, 문화 갈증해소 톡톡!

군민 문화 휴식처로 자리매김

연 중 무휴·최신 개봉영화 동시 상영

진안군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7월 개관한 마이골작은영화관이 지난달 30일 현재 누적관객 15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진안군 인구인 2만6,239명의 약 5.7배에 달하는 수치로 군민 1명당 1년에 영화 2편을 본 셈이다.

2일 군에 따르면 총 18여 원을 들여 연면적 477㎡ 면적에 2개 상영관 98석 규모로 지은 마이골작은영화관은 연 중 무휴로 군민들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문화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군민들의 꾸준한 영화 관람과 매점

운영을 통해 지난해 총 3,731.6만원의 순이익도 올렸다.

도시지역 상업영화관보다 저렴한 관람료 정책으로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연령·계층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여 매일 5~6편의 최신 개봉영화를 동시 상영하고 있다. 또한 영화관 근무자를 진안군민으로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영화 관람객의 진안군 내 소비를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평일에는 학생 등 청소년층이 많고, 야간과 주말에는 가족단위 관객

들이 영화관을 찾으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과 가족 화합의 장소로 자리를 잡았으며, 각종 기관들의 단체관람을 통해 읍·면 문화가 영화관람 분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수시로 폐지, 스마트폰 작은영화관 APP 운영과 더불어 앞으로도 각종 문화이벤트 접목을 통해 관람객 증가와 군민 문화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이골작은영화관이 지역 주민들의 사랑 속에 대표 문화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면서 군민의 문화갈증 해소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관람객 6만 명을 목표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군민의 편안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AM GOWON